

서울시교육청, 고도영재 키운다 '초등영재 표준 교육과정' 수립

영재교육기관 체계적 운영 지원
기관별 편차 줄이고, 연계성 높여
고도영재 선정 리스트·매뉴얼 개발
올해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과융합, 수학, 과학, 융합정보 분야를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영재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왔다.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교육기관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해 표준화된 영재 교육과정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 수립 포스터. /서울시교육청

올해에는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발된 운영매뉴얼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판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으로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영재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으며,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방안 탐색'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올해 첫 '미래내집' 입주자 모집

총 567가구... 저출생 대책 지원
장기전세주택·보증금 지원형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래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총 567세대다.

서울시는 11일 공고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367가구와 보증금 지원형 200가구 등 총 567가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대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제4차 미래내집' (장기전세주택Ⅱ)으로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1700만원(중랑구 가현 율리움 면목 1차 48㎡), 최고 9억7500만원(서초구 래미안 원웨이 59㎡)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 59㎡(총 212호)가 공급된다. 1호선 외대안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또 다른 단지인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



서울시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적 49㎡, 59㎡, 70㎡, 84㎡(총 11호)가 공급된다.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해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시엘(관악구 봉천동) 12호 등 15개 단지, 367호에 대해서도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래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래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한다. 전세형 장기임대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 장기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입주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육사, 필기시험 없는 입시전형 신설

미래국방인재전형... 사관학교 '유일' 학교생활기록부 우수인재 선발

육군사관학교 입시에서 필기시험 없는 전형 생겼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시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미래국방인재전형이 신설됐다. 사관학교 중 1차에서 필기시험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이 전형이 유일하다.

우선선발 전형 중 하나로, 1차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사관학교 시험은 크게 특별전형을 포함한 우선선발과 종합선발로 나뉘는데, 모든 응시자는 1차 시험(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을 응시해야 한다. 1차 시험 성적이 일정 배수 안에 드는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에 응시할 수 있다.

육사 미래국방인재전형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최대 3명)을 받아야 하며,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예술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 외국 고등학교 등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학교 출신은 지원이 불가하다.

1차에서는 학생부(서류평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학업성취도(80%), 학업태도(10%), 진로역량(10%)을 평가한다. 서류평가이지만 일반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정량평가방식으로 이뤄진다.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80%로 높은 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다른 전형들과 다르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3개 합 8등급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관학교는 20~3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

과는 차이가 큰 편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거나,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해 빠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며 "다만, 시험성적 외에도 면접이나 체력검정 등 당락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원서 접수 기간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는 1차 시험, 2차 시험, 학생부 성적 등을 종합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먼저 선발하고, 이 때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자동으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우선선발과 달리 수능 성적이 포함된 전형 방법으로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1차 시험일은 7월 26일이다. /이현진 기자

"국내 색조화장품, 중금속 안전기준 충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05건 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색조화장품 105건(오프라인 매장 80건, 온라인플랫폼 25건)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등 유해 중금속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

매되는 립밤(20건), 마스크라(16건), 아이라이너(23건), 아이브로펜슬(21건)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바디페인팅 제품(25건) 등 총 105건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중 국내 기준 초과 제품과 동일한 유형 중국내 유통 색조 립밤, 바디페인팅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5종을 검

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카드뮴이 최대 3.6 μg/g 검출됐으나, 이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5 μg/g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해당 제품은 수입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제품 구매 시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 통해 인재양성

공정실습 교육·산학협력 지원
약 614㎡ 규모... 클린룸 등 구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지난 9일 반도체 패키지 공정실습 교육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반도체 패키지 LAB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전문 인재양성에 나섰다.

10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반도체 패키지 LAB은 약 614㎡ 규모로 패키징 전용 클린룸과 평가분석실, 반도체 VR 교육실 등에 다양한 패키징 공정 및 평가분석 장비를 갖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패키지 공정 교육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반도체 패키지는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화된 전자회로를 유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칩(chip)으로 가공하는 핵심 공정이다.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호서대는 이러한 산업적 흐름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LAB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패키지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동철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호서



강일구 호서대 총장(왼쪽)과 오세현 시장이 호서대의 반도체 패키지 LAB을 시찰하고 있다. /호서대

대는 정부가 선정한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지 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수요를 반영한 혁신 교육체계와 반도체 패키지 전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호서대 강일구 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아산시 오세현 시장,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최시돈 회장, 충남테크노파크 차남구 첨단사업 본부장, 제너셀 한복우 회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과 호서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